

합천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실태평가 1위

(낙동강유역환경청)

홍수관리시스템 구축등 재해예방 호평

경남 합천군이 최근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실시한 낙동강 등 19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평가는 부산, 대구 및 울산 3개 광역시와 경상남·북도 27개 시·군 등 총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했고, 합천군, 밀양시 및 예천군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군은 전체 평가대상 중 1위로 선정돼 2023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2억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받게 됐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군은 국가하천 및 배수영향권

지방하천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해예방체계를 고도화했으며, 국가하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의 적기 시행을 통해 하천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국가하천 친수공원에 매년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해 핑크물리 식재 등 친환경 관광콘텐츠를 도입해 왔으며, 신소양 체육공원에는 올해에도 10만여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와 국가하천의 관광명소화에 노력하는 등 재해예방이라는 치수적인 하천기능과 함께 주민친화적 하천이용의 측면에서 모두 성과를 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합천=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99 X 105 mm

합천군, '기초디지털 찾아가는 교육'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최근 널리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디지털세상 적응을 위해 지난달 22일 해인경로당, 25일 유전경로당에서 기초 디지털교육을 실시했다.

상기 교육은 합천군과 디지털배움터 사업단간 연계를 통한 시범교육으로, 교육강사가 직접 해당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법, 안심앱 사용법, 보이스피싱 예방 등'을 교육했다.

교육을 받은 문모씨는 "스마트폰에 대해 그동안 잘 모르던 것들을 물어보고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고,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면 키오스크 조작을 못해 주문하기 어려웠



는데 이렇게 직접 조작해 보니 이제 어디서든 척척 할수 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에서는 2023년부터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기초디지털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강사교육'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효열기자 hylee@dongbangilbo.co.kr

102 X 102 mm